

“타인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?”.
 지금 여기에서 자기 존재감 찾아야 할 때.
 그러나 오직 취업이 1순위인 청년세대.
 푸르름으로 채워나가야 할 청춘시기에
 좁은 책상에 올려 놓은 취업을 위한 교재에
 온 몸과 마음을 맡기는 세대가 되어버린.
 결국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넘어
 자아 실현의 욕구는
 안전과 안정의 기초욕구에 막혀버린.
 이 때 숨통 트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초대합니다.

프로그램

구분	첫째날	둘째날
오전	도착 및 접수	- 채운 욕구 좌절 욕구 - 악어강
오후	- 자존심과 자존감 - Behind Back	- 자신과 자신감2 - 90초 연설
저녁	- 자신과 자신감1 - 나무 젓가락 놀이	

· 1박 2일 일정의 온-Green은 4회 이상의 참여를 통해, 참 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 스스로 세상에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드립니다.

